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작업치료 서비스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이혜경*

*경북과학대학 작업치료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작업치료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작업치료 저변 확대 및 필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한다.

연구방법 : 2009년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부모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작업치료 서비스 이용실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연령층은 30, 40대가 다수였으며 교육 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58%, 대졸이상인 38.9%였다. 작업치료 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 빈도는 주당 3~4회, 치료시간은 일회 20~30분이 가장 많았다. 작업치료의 세부적 프로그램으로는 감각통합치료,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75%가 장애아동이 작업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작업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결론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아동의 개별화된 목표에 맞는 질적인 작업치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작업치료의 저변확대, 장애아동부모의 작업치료 욕구 증가, 충분한 인원의 작업치료사 확충과 시설확보,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보육시설장, 작업치료사, 부모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작업치료,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부모, 이용실태, 만족도

I. 서론

우리나라는 1996년 장애아보육 활성화방안의 마련으로 장애아 보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03년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무상교육이 시행된 이래 장애아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정부의 인적, 재정적 지원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이소현, 2000).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교신저자 : 이혜경(otr255@kbsu.ac.kr)

|| 접수일: 2011. 05. 21 || 심사일: 2011. 06. 08

|| 게재승인일: 2011. 06. 14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보육시설로 정한 시설을 말한다(이상희, 2009). 전체 보육시설에서 장애전담보육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보육은 물론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2009년 현재 전국에 168개소이며 6,832명의 장애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전체 종사자는 3,102명이며 이 가운데 치료사는 491명으로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치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행동심리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으로 치료사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포함된다. 이상복, 정영숙과 문현미(2006)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심리(행동)치료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시설운영자가 장애아동의 치료에 대한 전문성 인식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전담어린이집의 경우 51.9%가 작업치료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양자(2001)는 보육시설 내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장애영유아의 작업치료는 아동의 개별 발달수준과 특성에 대해 명확한 진단·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적 요구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강미라, 2007). 장애영유아의 현재 수행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그 수준에 근거한 개별화 치료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련의 발달단계에 따라 습득해야 할 기술을 확인하고 장애아동의 장점을 파악하는 면밀한 평가와 부모와 가족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조광순, 전병운, 박혜준,과 홍은숙, 2005; Lerner, Lowenthal, & Eagan, 2003).

장애아동작업치료에 있어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아동의 작업능력의 회복을 촉진하고 또래집단의 작업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작업치료의 목표는 장애아동이 독립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활동을 하며 지역사회환경에 참여하는 것이다(이재신, 이택영, 이지영과 유은영, 2005).

장애아동을 중재하는 작업치료사는 비단 아동뿐 아니라 부모와 적절한 연대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과 작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작업(occupation)에 가족이 참여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Case-Smith, 2005; Law, Polatajko, Baptiste, & Toensend, 1997). 이러한 과정에서 치료의 주체인 장애아동 부모의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는데, 전병진과 이지연(2006)은 장애아동 부모가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재활전문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작업치료의 욕구가 상당히 높다고 하였다.

바우처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작업치료의 인식수준이 높았고 신체기능 증진, 인지지각 훈련, 의사소통과 같은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윤희, 2009). 경상북도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아동 부모들은 자녀의 조기치료를 위한 치료서비스 시설 확충을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하였다(남상순과 최외선, 2009). 박선자(2008)는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부모 중 87%가 작업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작업치료 요구도가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작업치료의 욕구와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이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전담보육시설에서 실행되고 있는 작업치료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작업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보

육시설의 작업치료 저변확대 및 필요성 부각 그리고 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절차

연구 대상자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서 작업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절차는 먼저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5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선정하였다. 시설선정 기준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선정하였다. 다음으

로 시설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기관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09년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총 150부를 배포하였고 이 중 105부를 최종적으로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최재성(1998), 한수정(2003), 박선자(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도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장애아동의 일반적 사항, 작업치료 이용실태, 작업치료 만족도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 내용

설문지 구성	하위영역 문항 내용	항문 수(개)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	성별	6
	거주지	
	연령	
	월평균소득	
	직업	
	학력	
대상자 아동의 일반적 사항	성별	3
	연령	
	장애유형	
작업치료 서비스 이용실태	작업치료를 받은 기간	7
	일주일에 작업치료를 받는 빈도	
	1회 작업치료를 받는 시간	
	작업치료사에게 받고 있는 프로그램	
	작업치료 서비스 형태	
	작업치료의 충분성	
	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작업치료 서비스 만족도	치료횟수	5
	치료시간	
	프로그램	
	치료유형	
	치료환경	
합계		21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작업치료 서비스 이용실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인원수는 105명이며 조사 대상자 중 여성 91명, 남성 14명으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주부 응답자가 많았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38.9%를 차지하였다(표 2).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 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 (N=105)

구분	구분	인원수(%)
성별	남성	14(13.3)
	여성	91(86.7)
거주지	대구	63(60.0)
	경북	42(40.0)
연령	20대	17(16.1)
	30대	52(49.5)
	40대	21(20.0)
	50대	13(12.3)
	60대 이상	2(1.9)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8(17.1)
	100-200만원	37(35.2)
	200-300만원	26(24.7)
	300-400만원	18(17.1)
	400만원	6(5.7)
직업	전문직	9(8.5)
	사무직	18(17.1)
	자영업	7(6.6)
	전업주부	32(30.4)
	생산기술직	26(24.7)
	기타	13(12.3)
교육수준	초졸	3(2.8)
	중졸	20(19.0)
	고졸	41(39.0)
	대졸	34(32.3)
	대학원이상	7(6.6)

2. 연구 대상자 아동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아동의 성별은 남아와 여아의 성별 분포는 남아가 다소 많았고, 연령은 7세 이상이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애유형은 정신지체와 발달장애가 약 68%로 다수를 차지하였다(표 3).

3. 작업치료 이용실태

연구 대상자들의 장애아동이 작업치료를 받은 기간은 3년 이상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치료를 받은 횟수는 주 3-4회가 42.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1회 작업치료를 받는 시간은 20-30분이하가 40.0%로 가장 많았다. 아동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사회적응훈련 30.4%, 감각통합 27.6%,

표 3. 대상자 아동의 일반적인 사항 (N=105)

일반적 특성	구분	인원수(%)
성별	남아	57(54.2)
	여아	48(45.7)
연령	2세미만	7(6.6)
	2-4세 미만	18(17.1)
	4-6세 미만	38(36.1)
	7세 이상	42(40.0)
장애유형	발달지체	11(10.4)
	정신지체	28(26.6)
	발달장애	44(41.9)
	언어 및 청력장애	6(5.7)
	기타	16(15.2)

일상생활동작훈련 20.0%, 인지기능훈련 11.4% 순으로 많았다. 작업치료 형태는 2-3인 집단치료가 35.2%로 가장 많았다. 아동이 작업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75.2%를 차지하였다. 충분히 작업치료를 받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료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아동이 작업치료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나 이동수단의 어

려움 등을 호소하였다(표 4).

4. 작업치료 만족도

작업치료의 만족도는 5점 리퀴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치료 빈도는 만족 이상이 50.4%로 절반 정도가 만족한 수준을 보였으며 치료 시간은 만족 이상이 21.8%, 불만족 이상이 50.4%로 불만족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치료프로그램은 만족이상이 58.0%이며 치료유형에 대하여는 48.5%가 만족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치료환경은 보통이 가장 많았으며 매우 불만족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표 5).

표 4. 작업치료 서비스 이용실태 (N=105)

서비스	구분	인원수(%)
치료기간	6개월 이하	7(6.6)
	6개월-1년 이하	10(9.5)
	1년-3년 이하	34(32.3)
	3년 이상	39(37.1)
치료빈도	주 1-2회	37(35.2)
	주 3-4회	45(42.8)
	주 5-6회	23(21.9)
치료시간	10분 미만	14(13.3)
	10분-20분 이하	38(36.1)
	20분-30분 이하	42(40.0)
	30분-40분 이하	6(5.7)
	40분 이상	5(4.7)
치료 프로그램	감각통합훈련	29(27.6)
	사회적응훈련	32(30.4)
	일상생활동작훈련	21(20.0)
	인지기능훈련	12(11.4)
	시각 및 지각훈련	4(3.8)
	기타	7(6.6)
치료형태	1대1일 치료	19(18.0)
	2-3인 집단치료	37(35.2)
	4-5인 집단치료	32(30.5)
	6명이상 집단치료	17(16.1)
치료의 충분성	만족한다	79(75.2)
	만족하지 못한다	26(24.7)
충분성에 미치는 요인	치료비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52(49.5)
	작업치료에 만족하지 못함	19(18.0)
	기타	7(6.6)
	기타	27(25.4)

표 5. 작업치료 서비스 만족도 (N=105)

구분	만족도	인원수(%)
치료빈도	매우 만족	23(21.9)
	만족	30(28.5)
	보통	32(30.4)
	불만족	13(12.3)
치료시간	매우 불만족	7(6.6)
	매우 만족	7(6.6)
	만족	16(15.2)
	보통	29(27.6)
치료 프로그램	불만족	32(30.4)
	매우 불만족	21(20.0)
	매우 만족	15(14.2)
	만족	46(43.8)
치료 유형	보통	34(32.3)
	불만족	9(8.5)
	매우 불만족	1(0.9)
	매우 만족	21(20.0)
치료환경	만족	30(28.5)
	보통	34(32.3)
	불만족	13(12.3)
	매우 불만족	7(6.6)
치료환경	매우 만족	7(6.6)
	만족	33(31.4)
	보통	48(45.7)
	불만족	17(16.1)
치료환경	매우 불만족	0(0.0)
	매우 불만족	0(0.0)

IV. 고 찰

본 연구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부모들의 작업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5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부모 105명에게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치료의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30, 40대가 69.5%로 비교적 젊은 층이 다수였으며 아동의 연령은 95.4%가 2세 이상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58%, 대졸 이상이 38.9%였다. 최근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보육시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육시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남희정(1998)은 부모의 연령이 낮고 수입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한 반면, 최일섭(1998)은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상반된 연구를 보였다. 박윤희(2009)는 부모의 학력과 작업치료 인식도와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상희(2009)의 연구는 전체 대상자 중 대졸 이상의 부모 비율이 6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비교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수준은 조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연구하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요인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작업치료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빈도는 주 3-4회, 치료시간은 20-30분이 가장 많았다. 치료프로그램은 감각통합,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이 가장 많았다. 박윤희(2009)의 연구에서 종합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치료빈도가 주 2회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장애아동이 작업치료를 더 많이 받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박선자(2008)의 연구는 작업치료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32.0%로써 본 연구의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상순과 최외선(2007)은 장애전담보육시설의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39.4%로써 작업치료 기간과 보육시설 이용기간이 다소 비슷하였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특성상 보육과 치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셋째, 작업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견해가 75%였으며 장애아동부모들의 대다수가 치료비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남상순과 최외선(2007), 박윤희(2009), 조명숙(2004)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부모들이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아동부모가 처한 경제적 여건이 작업치료를 받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가 2003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치료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가계를 압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들의 절반가량이 치료빈도와 치료프로그램, 치료형태에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치료시간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한 양상을 보였다. 남상순과 최외선(2007)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치료서비스와 치료기자재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치료사 인원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전병진과 이지연(2006)은 장애아동 재활을 위해 전문치료사의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함을 지적하였고 이상복(2006) 등의 연구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치료사의 인원이 부족하여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시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치료사 인원수와 관련 있는 요소로서 보육시설에서 부족한 인원의 작업치료사가 다수의 장애아동을 치료해야하는 상황일 경우 부득이 회기당 치료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아동에 비례한 작업치료사 인원의 부족은 치료의 질과 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작업치료의 필요성에 대

해 부정적 인식을 가져오게 되어 향후 작업치료사의 취업과 진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선정할 때 대구·경북지역 소재로 한정하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전체 시설이 아닌 몇 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를 어려우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V. 결 론

작업치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부모를 통하여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작업치료 서비스 이용상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30, 40대가 69.5%로 비교적 젊은 층이 다수였으며 아동의 연령은 95.4%가 2세 이상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58%, 대졸 이상이 38.9%였다.

2. 작업치료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빈도는 주 3-4회, 치료시간은 20-30분이 가장 많았다. 치료프로그램은 감각통합,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이 가장 많았다.

3. 작업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견해가 75%였으며 장애아동부모들의 대다수가 치료비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4. 부모들의 절반가량이 치료빈도와 치료프로그램, 치료형태에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치료시간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한 양상을 보였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 아동의 개별화된 목표에 맞는 질적인 작업치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작업치료의 저변확대, 장애아동부모의 작업치료 욕구 증가, 충분한 인원의 작업치료사 확충과 시설확보, 정부 및 지자체의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 및 지자체와 보육시설

장, 작업치료사, 부모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라. (2007). 장애전담보육시설의 교육진단·평가 실제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현황.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제, 8(2), 1-29.
- 남상순, 최외선. (2007).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 이용자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 아동학회지, 28(4), 209-227.
- 남희정. (1998).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 박윤희. (2009). 장애아동부모의 작업치료 인식 및 요구도 조사연구: 바우처서비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부산.
- 박선자. (2008). 장애아동부모의 작업치료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구.
- 보건복지부. (2010). 2009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서울.
- 이상복, 정영숙, 문현미. (2006).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 정책적 함의. 정서·행동장애연구, 22(1), 47-76.
- 이상희. (2009). 장애아통합보육시설과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만족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부산.
- 이소현. (2000).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가족 참여를 위한 지원 및 중재 방안 고찰.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5(1), 1-18.
- 이재신, 이택영, 이지영, 유은영. (2005). 작업치료학개론. (주)탐메디오피아: 서울.
- 위양자. (2001).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장애유아교육 실태와 장애유아교육 활성화 방안조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공주.
- 전병진, 이지연. (2006). 치료교육에 대한 장애

- 아동 부모의 욕구 조사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4(1), 71-79.
- 조광순, 전병운, 박혜준, 홍은숙. (2005). 유아특수교육기관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을 위한 진단평가 현황. 특수교육학연구, 39(4), 87-125.
- 조명숙. (2004).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아 부모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천안.
- 최일섭. (1998). 이용자(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8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28-300.
- 최재성. (1998). 사회복지기관 평가모델개발의 방향과 과제(장애인복지관 운영 평가프로그램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5, 265-290.
- 한수정. (2003). 장애아동 부모의 의료재활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청주.
- Case-Smith, J. (2005). Developmental of child-hood occupation. In J. Case-Smith(Ed.), *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5th de., pp-88-116). Philadelphia: Mosby.
- Creek, J. (1990). The Knowledge base of occupational therapy in occupational therapy and mental health. Newyork: Churchill Livingstone.
- Law, M., Polatajko, H., Baptiste, S., & Townsend, E. (1997). Core concepts in occupational therapy. In E. Townsend(Ed), *Enabling occupation: An occupational therapy perspective*(pp. 29-56). Ottawa, Canada: CAOT.
- Lerner, J. W., Lowenthal, B., & Eagan, R. W. (2003). *Preschool children with special needs: children at risk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2nd eds). Allyn and Bacon : Boston.

Abstract

A Study on Parents' Actual Uses and Satisfaction toward the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at the Day Care Center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Daegu, Kyongbuk area -

Lee, Hye-Kyo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yongbuk Science University

Objective : The study is to suggest basic data for the expansion and the necessity of the occupational therapy at the day care center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through investigating actual use and satisfaction of parents who use the day care center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in Daegu · Kyonbuk area.

Methods : From May 15 to 29, 2009, 105 parents using the day care center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were surveyed.

Results : Terms of age group, parents using the day care center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are mostly 30s and 40s. In terms of academic background, there were 58% of secondary school graduates and 38.9% of college graduates. Parents with experiencing 3 years of the occupational theory had 37.1%, which held the largest group. 75% of the objects agreed that infants with disabilities received enough occupational therapy, while they pointed out that the financial burden for therapy would be the major factor in the therapy.

Conclusion : In order to provide a qualified occupational therapy in accordance with each individual's purpose at the day care center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it would be necessary to expand occupational therapy, to increase the demand for the occupational therapy from parents, and to secure enough number of therapists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y, day care center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parent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